

2024

5·18문학상 신인상 아동문학 부문 심사평



올해 5·18 문학상 아동문학 부문에는 90명의 지원자가 동시 130편과 동화 70편, 포함 200편을 응모하였다. 많은 예비 작가들이 5·18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응모 편수에서 느껴진 열기를 작품에 제대로 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올해는 1980년 5월로부터 44년이 지난 해이다. 그동안 5·18은 교과서에 실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5·18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승인하는 과정도 수행되었다.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서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쓰인 서사들이 5·18의 진상을 알리고 참혹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측면에 집중했다면 그 이후의 서사들은 현재적 의미와 더불어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많은 응모작들이 여전히 5·18과 단선적으로 연결된 후일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5·18 현장에 있었던 인물의 증언과 고통이 서사의 중심이 된 결과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응모작들이 꽤 있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5·18을 추체험시키려는 의도가 앞서 어설픈 환상 혹은 꿈의 세계를 그려낸 응모작들도 많았다.

5·18 정신은 그 날의 재현에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오늘날의 어린이에게는 환경이라는 긴급한 사안부터 (새로운) 소수자들과의 연대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 · 인권과 민주주의 등, 현재진행형 의제들이 확장되고 전진한 5·18 정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두 심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엄마를 모셔 오래>와 <그림 동전> 두 편을 최종심에 올렸다.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를 모셔 오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내면을 절실하게 담아내고 있고 특히 당차고 야무진 주인공 캐릭터가 돋보였다. 반면 모노 드라마처럼 오로지 독백으로만 전개하고 있어 생동감 있는 사건의 전개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림 동전>은 동전을 매개로 1980년과 2024년을 겹쳐놓는 상징적 결말과 두 세계를 이어주는 공중전화라는 장치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반면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다. 오랜 고심 끝에 <그림 동전>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투고자들에게는 진심어린 응원을 보낸다.

2024 5·18문학상 신인상 아동문학 부문 심사위원

김성범, 안점옥